

## 간호학 방법론으로의 Foucault의 담론분석

이 은 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및 의과학연구소

### Foucault's Discourse Analysis as a Methodology in Nursing

Eun-Joo L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 Abstract

Discourse analysis is a methodology, focuses on the socio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in which text and narrative occur. This paper was to introduce Foucault's discourse analysis as a methodology and to inspire the related researches in nursing. It delineated the discourse theory, and major concepts, the discourse analysis, and analysed the typology of the related nursing researches. There were two typed researches: Some papers revealed and explained the state of nursing as a disciplinary used Foucault's theoretical concepts, and persuaded the usefulness of discourse analytic approach. And others employed the discourse analysis as methodology, collected and analysed the data according it's method. The products of the discourse analytic approach in nursing could support the methodological pluralism and it's inevitability. Those could reveal the effects of dominant discourse (traditional science, medicine, administration, sexism and professionalism) to the nursing a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oppression and restriction, and suggest the new vision for nursing to construct the resistant discourse. This methodology had some limitations as other qualitative methodologies and postmodernist theories. When nursing researchers understand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analysis, it could be used to construct the fruitful nursing knowledge body.

**Key words** : Discourse analysis, methodology, nursing

#### 서론

초기 간호연구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1920년대에 시작되어, 1950년대에 미국의 대학원 교과과정에 연구방

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고, 60년대에 여러 가지 간호이론 개발되면서 연구의 양과 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 특히, Dickoff와 James (2) 그리고 Dickoff 등 (3)의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간호 지식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제안은 간호학의 독자적인 이론 개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Dickoff

와 James가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학자들이란 점에서 간호학자들에게 더욱 고무적이었다.

이 시기에 간호학자들은 간호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기 위해서 고유한 지식체를 가져야 하며 간호이론이 실제에서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문에서 개발된 이론에서 연역하여 간호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간호학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간호학의 독자적인 지식체는 간호 관점에서 본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었다 (1).

1968년 Leininger (4)가 간호학 연구에 인류학의 민족지 (ethnography) 접근법의 도입을 주장한 후, 경험 분석론에 기반한 특수론적 관점 (particularistic view) 과는 전혀 다른 전일론적 관점 (holistic view)에 기초하여 발표한 Rogers의 이론과 이에 영향을 받은 Parse와 Watson의 이론들이 출판되는 등 간호학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라 불릴 정도의 철학적, 이론적 논쟁이 일어났다 (1). 이후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적 방법론들이 간호학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1990년대에는 20개 이상의 질적 방법이 간호연구에 사용되었다 (5). 이 동안에도 통계적 추론과 일반화를 근간으로 하는 양적 방법론과 맥락 특이성의 발견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방법론간의 방법론적 적합성 논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방법론 논쟁의 양상은 어떤 방법론이 간호학 발전에 더 효과적이고, 더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서 오히려 방법론적 다원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간호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관점과 간호학적 현상에 어떤 방법론이 적절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Foucault의 담론분석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기초한 하나의 질적 방법론이다. 한국 간호학계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과 같은 다른 분과 학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북미, 영국 등의 다른 나라 (6)와는 달리,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Check (7)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양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이 학술지 게재나 연구비 수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토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질적 방법론 (예를 들어, 민속기술지, 근거이론 접근법, 현상학적 방법론 등)이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 대대적인 학술대회나 초청강연을 통해 소개했던 것에 비해, 담론분석은 1995년 첫 논문 (8)이 나온 이후 몇 편이 더 출간되긴 하였으나, 학부는 물론 대학원의 방법론 강의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호학에서 방법론적 다원론이 지지된다고 해서, 어떤 것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법론적 논쟁에서 논리실증주의적 관점과 연구에 가해진 비판을 상기한다면, 하나의 방법론을 간호학적 지식 생산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론은 간호학과의 인간주의적 전통과 부합하는가? 그것의 인식론적 배경은 (간호학적) 지식체 생산을 지지 혹은 기여하는가? 또 연구과정에서 그것은 간호연구현상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가? 나아가 연구 결과가 간호학적 실천/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다른 분과학문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어 성과가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Foucault의 담론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담론분석을 활용하는 연구를 고무하기 위해, Foucault의 담론이론과 담론분석을 소개하고, 간호학에서 담론분석을 이용한 연구의 유형과 성과를 설명하며, 간호학적 방법론으로서 담론분석의 특성과 유용성 그리고 한계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Foucault의 담론이론과 담론분석

### 1. Foucault의 담론이론의 배경

Foucault (1926-1984)의 담론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시도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시도를 가능하게 했던 학문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Foucault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9, p52). Foucault의 업적들은 과학사 및 20세기 중엽 프랑스에 있어서의 인간과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의 전반적인 문학과 예술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한다 (10, p8-10). 그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18세기 말에 인간이 삶의 주체로써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가진 지식의 대상으로써 해석되기 시작했을 때 결정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Foucault는 인간이 자연 (그의 몸), 사회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 그리고 언어 (그의 모국어)에 전체적으로 연루되는 단 하나의 고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의미가 부여되고 조직화되는 그의 활동 안에서 이러한 모든 연루들에 대한 굳건한 기초를 찾아내는 유일한 존재라는 Kant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9, p20).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Foucault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관한 학문들이 과거 20년 동안, 현상학에 대한 두 갈래의 극단적인 방법론적 반작용 즉, 구조주의와 해석학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는 Kant의 주체/객체 구분을 이어 받았지만, 그 구분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모두 의미부여의 선형적 주체라는 Husserl의 개념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구조주의자는 모든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의미와 그 주체 두 가지 모두가 필요 없도록 하려는 시도에 접근하고 있다. 그 반대편인 해석학은 인간을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이해하려는 현상학자들의 시도를 포기하고, 의미를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실체와 문학적 텍스트 내에 주체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9, p20).

그러나 이에 대한 Foucault의 선택은 사회과학과 철학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대립해 왔던 이런 두 입장, 즉 인간주의와 사회학주의, 혹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다같이 버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각자의 주

관에 입각하여 사물을 보는 것도 방법론적으로 온당하지 않지만, 또한 자연과학이 그러하듯이 인간과 무관한 객관화된 법칙에 의해 사물을 보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11).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Foucault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계보학적 질문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드러내 보이고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설명의 논리를 뜯어내어 샅샅이 조사하는 작업에서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질문인데,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합리적인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그 근거를 사회의 물질 토대와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적 조건과 규칙, 또는 전용과 배제 따위가 갖는 권력의 효과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세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지식인이 이론적 연구에서나 전문화된 지식과 정치적 투쟁 사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떠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지식의 상호성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이러한 질문은 앞서 나온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질문, 즉 권력과 지식에 대한 논지가 바로 Foucault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이론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이다 (12, p227). 이에 Foucault의 작업방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생긴 것으로, 이 방식을 적용한 그의 작업들은 그의 인간 이해 실천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 2. Foucault의 담론이론

담론, 담화, 언설, 지식의 흐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discourse' 라는 말은 라틴어인 'dis (여러 다른 방향에서)'와 'currere (달린다)'가 합성된 단어로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앞뒤로 움직이고 순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13). 담론이란 용어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상적 언어소통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화자 상호간의 '말 주고 받음', 구두 대화, 사고의 교환 등을 나타내는 담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Habermas의 담론 개념으로, 그에게 담론이란 동등한 위치와 같은 질량의 정보를 가진 화자들이 합리적 방법을 통해 광의적인 의미의 의견일치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이때의 목표는 외적인 강요가 배제된 내적인, 즉 합리적 강요의 성격을 지닌 설득력 있는 논증이 중요하며, 이로써 화자 상호간의 이성적인 합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Habermas의 담론 개념은 기존의 그리고 경험적인 담론의 서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토피아적 담론의 지평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조절하는 이데아로서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Foucault의 담론 개념이다 (14). 담론에 대한 여타의 관점과 Foucault의 차이는 그가 분석의 대상을 담론적 실천이라는 예술 실체와 그 실체를 생산해 내는 실천의 차원에 둔다는 데 있다 (15).

간단하게 말한다면 Foucault에게 담론이란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 (16), 즉 '언어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문법체계로서의 랑그 (langue)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쓰이는 실천으로서의 언어 (parole)를 의미하며 (15), 언어는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시키는 사진과 같은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규범적이고 가치 창출적이어서 자체의 법칙에 의해 형성된 의미의 질서 안에 대상을 편입시킨 것이 된다 (11). 그래서 담론이란 언어체계와 사회체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산물로 (16), 생각하고 인지하고 말하는 인간 주체가 위엄을 떨치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그 자체가 전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분산되고 존재하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단절되는가를 규정해주는 그런 것이다 (17).

Foucault (17, p156-157)에 따르면 담론이란 동일한 형성의 체계로부터 작성된 언술들 (énoncés)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이 때 언술이란 기호들의 집합에 고유한 존재양식이 된다. 이 기호들의 집합은 그것이

일련의 흔적들이나, 어떤 실체 위에서의 표식들의 계기, 그리고 어떤 인간에 의해 제작된 어떤 대상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을 가지며, 그것이 대상들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모든 가능한 주체에 일정한 위치를 규정지어 주며, 다른 언어적 수행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반복 가능한 물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을 띠게 된다. 즉 언술은 명제와도 구분되고 문장도 아니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이를 둘러싼 관계망 안에서만 기능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와 사회과정이 담론의 구조 안에 언어의 형태로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리는 언어적 요소이다 (16).

그런데 Foucault (17)는 언술이 특정 담론으로 구성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련의 언술들 사이에서 분산의 체계들을 기술할 수 있을 때, 대상들 사이에, 언술행위의 유형 사이에, 개념들 사이에, 테마 (전략)적 선택들 사이에 규칙성 (질서, 상호관계, 위치와 기능작용, 변환)을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 담론적 구성체 (discursive formation)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이 분배의 요소들 (대상들, 언술 행위의 양태들, 개념들, 테마적 선택들)이 이에 복종하는 바의 조건을 구성의 규칙들이라 부를 것이다. 구성의 규칙은 주어진 담론의 분배에 있어서의 존재의 (공존의, 존속의, 수정의 소멸의) 조건이다" (p67-68).

담론을 지배하는 규칙은 담론 이전에 제정되어 담론 때마다 적용되는 규제적인 규칙이 아니다. 담론이란 담론 밖에서 부과된 규칙에 따르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담론은 그 탄생으로 담론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젠더나 인종과 같은 어휘 (vocabulary)가 중요한 것이 되는 이유이다 (6).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내에서 이 단어들을 선택하며, 언어의 반복과 그 언어와 관련된 실천을 통해 여자와 남자가 되고, 황인종, 백인종, 혹은 흑인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론은 그 고유한 수준과 영역에서, 고유한 규칙성을 성립시키면서 고유한 요소들을 형성해 내는 고유한 실천이

다. 그래서 ‘담론적 실천 (discursive practice)’이란 표현이 가능해 진다 (18).

그런데 이런 담론적 실천 과정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는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 (19, p16). 담론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울 수 있는 권력의 효과를 지니는 까닭에 사람들은 담론을 획득하려 하고 그 권력의 효과를 통제하려 한다 (16). 즉 담론적 실천에는 권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력이 단순히 금지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물을 관통하고, 생산하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론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Foucault의 권력 (power)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과는 크게 다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상의 주의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권력행사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테마가 아니며, 오히려 어느 대목에서 권력이 권리의 규칙을 넘어서는가를 물어야 한다. 두 번째, 권력분석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의도 (intention)나 결정 (decision)이 아니며, 권력분석이 관심을 두는 주체의 의도는 이미 현실 속에서 권력이 실현될 때 드러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목표와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효과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권력이란 한 개인이 각 타인에 대하여 또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 동질적인 지배형태가 아니며, 권력이란 사회 속에 유통되면서 하나의 사슬처럼 엮여있는 그물망이다. 여기서의 개인은 권력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인 권력분석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권력의 상승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하여 권력은 보다 큰

권력의 메커니즘 안으로 포섭되며, 일반적인 권력 또는 경제적 이익이 소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권력으로서, 보다 섬세한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정교한 절차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가족이나 환경, 또는 감옥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여기서 이러한 억압과 배제의 현상이 자신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와 논리를 동원했는지를 찾아야 하며,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권력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 생산문제가 중요하나, 이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관찰하고 기술하며, 조사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아 둔 도구, 또는 지식이라 불러야 한다. 이것은 권력이 미세한 작동 메커니즘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식을 -아니 지식 기구 (apparatus of knowledge)를- 조직하고 유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의 지식은 기왕의 이데올로기 개념과는 달라진다 (21).

다시 말하면 Foucault가 다루는 권력은 물리적 강제나 조직의 압력 등으로 표현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기본으로서의 지식의 재생산 안에서 부단히 지식의 형태로, 따라서 많은 경우에 당연시된 채 행사되는 권력이 된다 (11). Foucault에게 권력이란 흔히 이야기되는 정권이나, 대권, 제도, 구조, 특정한 권세, 또는 예측의 양태라기보다는 가정이나 일터 등 모든 사회의 위상에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이름” (22)인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부모와 자녀,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세력관계가 맺어지는 모든 경우에 나타난다 (23). 권력은 수용 가능한 지식을 제한하며, 지식은 권력 관계에 의해 설정된 제한에 대한 반응 혹은 때로는 저항으로 발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권력은 저항적 요소는 물론 생산적인 요소를 가진다. 그래서 권력과 지식은 상호 생산적이며 항상 저항에 관련하여 행사된다 (22). 그것들이 비록 같은 힘을 가질 수 없어도 변화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저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4).

권력은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 지식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인 지식 형성 주체의 위치 선정, 대상 영역의 규정, 이론적 주체의 선택에 관여한다. 지식은 권력 작용의 소산이면서 권력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매개체이고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력과 지식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게 되고 '지식/권력'의 형태를 띠게 된다 (16).

Foucault에 있어서 지식이란 이데올로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지식은 한 담론적 실천에 의해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그리고 한 과학의 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그것이 반드시 과학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지식은 -바로 그것에 의해 특이화되는- 담론적 실천 속에서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바의 것이다. 또한 지식은 그 안에서 주체가 그의 담론 속에서 관계해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 개념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적용되고, 변환되는 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담론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과 전유의 가능성들에 의해 정의된다. 과학에는 독립적인 지식들이 존재하나 정의된 담론적 실천이 없는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담론적 실천은 그것이 형성하는 지식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17, p252-253).

다시 말해 담론은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사회적으로 위치하는, 실천 기표화 하기 (signifying practices)이다 (6). 이것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담론은 사회적 제도와 행위 맥락 내에서 그 자체가 설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인'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해보자. 조선시대에서 미인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담론적 실천 (혹은 이야기 되든 바)과 중세 유럽에서의 종교적 의미로 행해졌던 다이어트 (혹은 금식)와 오늘날의 그것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담론은 세계에서의 우리의 해석, 지각 그리고 상호작용을 구성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론은 내면화되고, 지침으로 작용한다

(6). 그래서 담론은 "텍스트적인 그리고 구어적인 의사소통에서 확인될 수 있고, 더 넓은 사회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일군의 관념 혹은 패턴화된 사고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25).

### 3. Foucault의 담론분석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담론분석 (6)은 텍스트와 이야기가 발생한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두는 탐구의 한 영역이다 (25). 담론분석을 위해, Foucault (19, p41-43)는 전통적인 지성사를 지배해온 창조, 통일성, 시원성, 및 의미작용이라는 개념은 타파되어야 하고, 사건, 계열, 규칙성, 그리고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개념들이 분석을 위한 규제 개념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으로서의 담론이라는 개념에는 담론이 생산된 것이며, 발생된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담론이 하나의 사건이고 생산된 것이라면 그 생산 조건, 존재조건은 무엇이고, 생산법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똑같은 차원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규모나 연대기적 너비, 또는 그 영향력에 따라 여러 차원의 상이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사건을 구별하고, 그 사건들 속에 있는 그물망과 차원을 식별하여 사건이 상호간에 맞물려 서로를 낳게 하는 계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을 기초로 우리는 상징체계나 의미행위의 구조의 영역에 안주하는 분석을 거부하고, 세력관계나 전략의 개발 또는 전술 따위에 강조점을 두는 계보학적 분석방법에 귀착하게 된다. 즉,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20).

그래서 Foucault의 작업 의도는 주체로서의 인간, 주변성, 제도 (또는 제도적인 것), 정치를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Foucault는 지식/권력의 복합체로서의 담론구성체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계보학적 방법과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규범화의 기술,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통제 장치로서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26). 이에 Foucault의 담론분석은 사회 속에 움직이고 있는 유동적인 권력 관계의 그물망을 추적해 내고 그러한 관계의 집합이 일정한 대상을 포착하여 지식을 형성하고 질서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 하겠다 (12, p228-290).

담론분석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담론 체계가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 체계의 구성 방식, 담론적 실천의 효과와 양식, 그리고 담론 생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장의 제도화된 구조 등이다 (27). 담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담론형성의 내적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사용했으며,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반드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28).” 즉, 담론분석에서는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장이 명백한 진리가를 가지며, 그래서 발화될 수 있는가라는 조건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 간호학에서의 담론 분석적 연구

Foucault의 작업은 그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종종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분류되며, 간호학에서도 종종 이런 분류법 내에서 논의된다. 또 그가 한 번도 페미니즘을 옹호하거나 표방한 적이 없지만 페미니즘에서 그가 논의되는 것처럼, 그의 주장은 간호학에서도 페미니즘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간호학에서 Foucault의 연구 성과나 담론분석을 다룬 논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확한 분류라기보다 편의에 의한 분류이나, 본고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담론분석이나 Foucault의 업적이 어떤 점에서 간호학에 적합하고, 유용한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우선 Foucault 이론을 이용한 간호학 연구들은 그의 이론의 주요개념을 통해 간호학의 현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 이론의 유용성이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Dzurec (29)은 간호학에서의 복수의 패러다임의 개발과정을 명료화 혹은 단순화하기 위한 시도로 Foucault에 의해 논의된 지식/권력 개념과 훈육의 도구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Foucault는 지식/권력이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훈육의 도구 (disciplinary instrument)로 시험 (examination), 판단의 정상화 (normalizing judgement), 위계적 감시 (hierarchical observation)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Dzurec은 이 기제들이 간호학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를 서술하면서, 의학의 지식/권력인 논리실증주의 방법론과 이에 대한 저항적 지식 생산 방식인 현상학/해석학적 방법론이 서로에 대해 어느 것도 더 우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Foucault의 관점에서 보면, 간호학에서의 방법론의 다원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Doering (24)은 페미니즘과 함께 후기구조주의자로서의 Foucault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간호학과 의학의 권력관계를 분석하였다. 간호학과 의학의 권력 (혹은 지식/권력)관계가 형성되는데 있어, 훈육의 도구라는 기제들이 간호학의 교육, 이론,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이 두 학문의 권력관계분석을 통해, 권력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두 학문 간의 권력 관계에 저항하는 지식의 생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후기구조주의 관점을 간호학에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 Rafael (30)은 Foucault (31)가 말한 인간이 주체화되는 세 가지 기전, 실천의 구획 (dividing practice), 과학적 분류 (scientific classification), 주체화 (subjectification)를 통해, 간호 실무에서 권력/지식이 돌봄을 어떻게 제한 혹은 억압해왔는지를 고찰하면서, 돌봄의 해방적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Dzurec (32) 역시 이 세 가지 기전을 통해 경험분석적 방법론이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을 강화한 것을 설명하고, 간호학과 건강관리분과학문 내에서 새로운 권력/지식 개념 (예, 현상

학적 연구성과)이 이를 정신/신체와 같은 현상에 자리를 주고 있음을 주장한다. McCormick과 Roussy (33)는 Foucault 이론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특성과 페미니즘이 새로운 간호학적 실천 혹은 간호학 이론 다시보기 (re-visioning)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학이 건강에 대한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는 담론분석을 방법론으로 채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들이다. Dickson (34)은 폐경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담론과 중년여성들의 일상생활의 담론에서 폐경 지식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여성들의 폐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폐경에 대한 대안적 지식은 새로운 폐경에 대한 담론, 즉 여성성에 대한 그들의 내면화된 기준들을 통해 노화하는 여성들을 재정의하고, 그들의 폐경 상태에 관해 내면화된 여성성의 기준을 형성/재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Dickson은 담론분석이 연구와 실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Henderson (35)은 중환자실의 24시간 관찰용지가 Foucault의 권력개념을 이용하여, 간호사들이 의학적/지배적 시선으로 환자를 봄으로써 초래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Heartfield (36)는 간호행위의 증거인 간호기록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간호사가 행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호행위는 오히려 소실되고 간호사가 쓴 간호기록에서 비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Cheek (7)과 Powers (37)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의 간호학에서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Foucault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한다. 또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이 담론분석을 행한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예시하는데, Cheek (7)은 여성잡지에 보도된 중독성 쇼크 증후군 (toxic shock syndrome)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Powers (37)은 간호진단과 관련한 담론을 분석한다. 또 최근에 출간된 간호학 텍스트 3가지를 분석한 Georges (38)는 지배적인, 계몽주의적 의미에서의 '과학' 담론과 지금 나타나고 있으나, 주 변화 되어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고무된 담론

을 드러내면서, 간호학에서의 인식론적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간호학계에서 담론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연구를 보면 주로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포스트구조주의로서의 Foucault의 이론이나 담론분석을 소개하면서 이런 조류 혹은 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남선 (39)은 간호학과 보건의료의 역사와 관련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간호/간호학이 담론구성에 있어 실증주의에 따른 의학의 정치의식화에 밀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가 압박하는 성차별에 의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또 권봉숙과 박형숙 (40)은 한국 간호 지식체 구축의 역사를 살피면서, 담론분석적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Foucault의 개념들을 이용한다. 공병혜 (41)는 포스트모더니즘을 Derrida의 해체와 Foucault의 권력/지식개념을 들어 설명하면서, 간호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로 이은주 (8)는 학령기아동의 건강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여 부모, 교사 그리고 의료인의 역할 (Foucault의 용어로는 주체 위치)을 드러냄으로써 건강 담론이 생산/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지식/권력과 서로를 어떻게 배제, 억압, 저항하며, 얽혀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은주와 홍경자 (42)는 간호 실무의 결과물인 간호기록양식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다양해진 간호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간호 실무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그들은 경험적 분석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만이 간호실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간호기록이 간호사의 시선을 결정하고 간호수행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것이 간호행위의 마지막 단계라면, 간호사는 실무에서 대안적/저항적 개념을 포함하는 간호기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은주 (43)는 또 사춘기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에는 성적 존재/무성적 존재, 여성/남성, 그리고 성인/비성인 구획하기의 틀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성 (sex)이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핵심에 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단지 이 변화가 '정상'임을 확인하는데 몰두하는 것을 보여준다.

###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특성, 유용성 및 한계

위의 간호학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보면, 간호학 연구자들은 Foucault의 이론이나 담론분석은 패러다임 혹은 간호이론의 다원론에 대한 옹호나 그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간호학의 역사에서 지배담론(전통과 학, 의학, 행정, 전문가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의 억압과 제한이 간호학 담론(간호실무, 이론 교육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또 새로운 간호학적 실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담론분석의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담론분석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담론분석이 담론의 특이적인, 상황적 맥락에서 지식체의 기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일반화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한 맥락에서 지식/권력을 동반한 지배담론의 작동기제와 그 효과, 저항의 가능성에 관한 해석적 주장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cCormick과 Roussy (33)의 페미니스트 포스트구조주의의 관점은 차이에 대한 민감성-즉 우리 자신의 주체의 위치가 우리의 연구관심사, 연구 참여자의 선택, 그리고 구성되어지는 결과적인 지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인식하기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그리고 사회에서 작동되는 서면화되지 않은 배제의 규칙을 가시화하는 다른 형태의 억압에 교차하는 본질에 대해 인식하기-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들은 이 관점이 이론적 개념들에 기초하는 가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간호학 이론의 권력 불균형을 생산, 재생산하며 혹은 도전하는 기능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Cheek (7)은 저서에서, 간호학 문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한 논의 증가에 대해 Kermoe와 Brown (44)의 다음과 같은 '귀에 거슬리는' 공격을 인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껏해야 기분전환이며, 나쁘게는

현실적 내러티브-자본주의, 가부장제, 권력-는 나쁘게 흘러가는데, 여성과 다른 피억압집단이 계몽 프로젝트(필자주: 근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전환하기 위해 백인 부르주아 가부장제에 의해 날조된 인식론적 속임수이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간호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비판이 Foucault의 담론이론과 분석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Cheek (7)은 앞서의 비난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 합법적 연구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연구의 합법성은 무엇이 '타당한' 연구이고 '타당한' 연구 방법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하나의 특정한 견해를 가진 특정 집단(예, 연구 기금 수여나 연구출판 심사자들) 혹은 지배담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간호학에서 무엇이 타당한 연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방법론 논쟁(1)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와 유사하다.

간호학에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유용성 혹은 합법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독창적인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과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 내부자적 시선(emic view)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간호학자들은 Droysen의 설명과 이해라는 이분법적 개념, 즉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연구 목적이 다르다는 주장이, 왜 간호학이 패러다임을, 따라서 연구 방법론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믿었다 (1). 보편성과 인과적 가정을 부인하고, 인간을 처한 맥락에서 제거하지 않고 (인간) 현상을 이해하려는 입장은 특히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Allen과 Hardin (6)은 현상학의 전통에 근거하여 면담을 분석하는 연구가 역사, 제도, 사회적 질서의 생산 혹은 재생산에서 그것이 근거하는 언어를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에 의해 생산된 언어가 마치 '내적' 경험이나 이해에 대한 투명한 창을 제공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기원하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맥락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론 분석에서 언어는 구획

에 의해 차이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 주체의 경험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로 시작되는 내러티브를 보자. 이 내러티브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구획되고,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주체의 경험을 나타낸다. 이로써 내부와 외부가 형성되고 반복되며, 즉 언어와 함께 사회구조가 생산/재생산된다.) 결국 담론분석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학적 연구자는 누군가의 생생한 경험 (lived experience)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반성 (reflection)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판단중지는 또 다른 실증주의적 전통이며, 또 다른 신의 속임수이다 (6). 나아가 Allen과 Hardin은 면담에 근거한 담론분석이 방법론적으로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6); 한 주체가 자신의 말하기를 통해 어떤 차이를 구획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언어와 실천을 연결하기; 다른 누군가가 이와 같은 차이를 구획하고, 그 사람은 이러한 일련의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소집되어지며, 스스로를 이런 차이에 지향시킨 결과를 질문함으로써 사회적, 역사적 질문하기, 그리고 연구자에게 대상자의 어미 속에서 일어난 것 혹은 인간 실천을 넘어서는 '의미'의 영역에 호소하는 언어를 통해 추론할 것을 요구하는 심리학주의적 혹은 초월적 가정을 포함으로써 주체성의 공적 모델 (public model) 창조하기.

담론분석 연구에 대한 비판 혹은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다른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도 적용될 것이다. Check (7)은 담론분석 연구의 경비 효율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담론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가 당장의 실무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나, 이는 새로운 혹은 다른 방식으로 실천/실무를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결론 : 담론분석적 연구를 위한 간호학적 과제

간호학 연구를 이루는 이론적 관점, 즉 방법론은 결과적인 간호지식, 환자 간호에 영향을 주는 간호지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우리는 대상자와 지역 사회를 위해 이러한 이론적 입장이 가지는 잠재적 효과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모든 사람의 건강에 이익이 될 변화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간호학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지식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사람들과 간호학문에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가진다 (33). 간호학적 지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담론분석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담론분석적 연구가 간호학적 지식체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실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구 방법 혹은 기법상의 문제이다. Check (7)와 Powers (37)는 각각의 저서에서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연구 예를 들고 있지만, "포스트모던과 포스트구조주의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분석에 대한 일련의 규칙 혹은 지침을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 ... 연구에 단지 하나의 접근법 혹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7)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포스트모더니스트는 그들이 때로 방법론에 근접한다는 견지에서 진리와 지식을 둘러싼 전략들 혹은 투쟁들을 논의하나, 방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내키지 않는다" (7)고까지 말한다. 담론분석의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며, 하나의 방법이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담론분석의 결과 역시 "하나의 결과"일 뿐, 이것은 그 담론에 대한 유일한 분석 혹은 해석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포스트구조주의가 다양한 목소리, 시각 그리고 표현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실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 복수성, 파편화, 불확정성을 선호하며, 사회적 일관성과 인과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체화하고 일반화하는 서술과 설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44).

이는 또 Foucault '사건으로서의 담론'이란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위 Foucault의 담론분석 참조). 각각의 담론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으로 위치가 주어질 의미 있는 구성체계" (25)로, 담론이 하나의 사

건이고 생산된 것이라면 그 생산 조건, 존재조건, 생산법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유수유와 간호진단이란 담론을 보자. 모유수유란 담론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했지만, 간호진단은 이에 비해 짧은 연대기를 가진다. 이 두 가지 담론에 같은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분석에 대한 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은 실제 연구수행자에게는 재료만 가지고 조리법이 없이 요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당황스런 일이다. 학술적 가치가 있고, 엄밀하며, 논리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독자/청중이나 심사자의 비판에 견딜 수 있는 결과-즉 담론분석적 연구결과란 요리-를 만드는 것은 가진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조리법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연구 수행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담론분석에서 또 다른 과제는 담론 외적인 것들(사회, 경제, 정치 등등의 변동들)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넓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담론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처해진 것이며, 담론분석의 주요점은 이 처해진 상황에서 담론의 형성과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간호학에서 행해진 몇몇 담론 분석적 연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모유수유란 담론을 보자. 모유수유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맥락은,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기피'하거나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들과 관련이 있다. 담론분석에서는 양적 연구에서처럼 어머니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하나의 조작할 수 없는 혹은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둘러싼 담론 외적 조건으로서 대항적/저항적 담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학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주의가 지지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구사하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

한 간호학 지식을 생산하고,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Foucault의 담론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연구가 증대되길 희망하다. Allen (45)은 우리가 건강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는 간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간호학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담론분석적 연구의 생산물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Foucault (17) 역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요구하지 말라." 이제까지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해갈 간호학이란 담론도 이를 요구한다.

## 참 고 문 헌

1. 이은주, 박영숙.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 *대한간호학회지* 1993;23:453-466.
2. Dickoff J, James P. A theory of theories: A position paper. *Nurs Res* 1968;17:197-206.
3. Dickoff J, James P, Wiedenbach E. Theory in practice discipline: Part I, practice oriented theory. *Nurs Res* 1968;17:415-435.
4. Leininger M. Conference on the nature of science and nursing: Introductory Comments. *Nurs Res* 1968;17:484-486.
5. Leininger M. Current issues, problems, and trends to advance qualitative paradigmatic research methods for the future. *Qualit Health Res* 1992;2:392-415.
6. Allen D, Hardin PK. Discourse analysis and the epistemology of meaning. *Nurs Phil* 2001;2:163-176.
7. Cheek J. *Postmodern and Poststructural Approached to Nursing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0.

8. 이은주.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담론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9. Dreyfus HL, Rabinow P (서우석 역).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울: 나남. 1983/1989.
10. 이정우. *역자서문.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1992.
11. 한상진. *구조주의적 방법론*. 김동일 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 1991.
12. Gordon C (홍성민 역). 편집자후기, Gordon C (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1980/1993.
13. 장석만. 미셸 푸코의 담화분석과 종교학 연구. 한상진, 오생근 (편). *미셸 푸코론*. 서울: 한울. 1992.
14. 이지은. '담화이론'의 조류와 문예 이론과의 관계. *지식과 권력*. 서울: 한울. 1991.
15. 김진명. *의례 및 일상생활을 통해 본 가부장적 담론과 권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16. 김성언.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한상진, 오생근(편). *미셸 푸코론*. 서울: 한울. 1992.
17. Foucault M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1969/1992.
18. 김부용. 미셸 푸코에 있어서 지식과 권력. 한상진, 오생근(편). *미셸 푸코론*. 서울: 한울. 1992.
19. Foucault M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1971/1993).
20. Foucault M (홍성민 역). 진실과 권력. Gordon C (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1980/1991.
21. Foucault M (홍성민 역). 왕의 머리베기와 훈육. Gordon C(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1980/1991.
22. Foucault M (홍성민 역). 전략과 권력. Gordon C(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1980/1991.
23. 이규현. *역자 서문. 정의 역사 : 제 1권 삶의 의지*, 서울: 나남. 1992.
24. Doering L. Power and knowledge in nursing: A feminist poststructuralist view. *Adv Nurs Sci* 1992; 14:24-33.
25. Lupton Discourse analysis: A new methodology. *Australian J Public Health* 1992;16:145-150. recited in Heartfield M. Nursing documentation and nursing practice: a discourse analysis. *J Adv Nurs* 1996;24: 98-103.
26. 김부용. *역자 서문,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서울: 인간사랑. 1993.
27. 이기현.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담론 이론과 담론 분석. *현대비평과 이론* 1994;4:75-93.
28. Foucault M (홍성민 역). 육체와 권력. Gordon C (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1980/1991.
29. Dzurec LC. The necessity for and evolution of multiple paradigms for nursing research: A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 *Adv Nurs Sci* 1989;11:69-77.
30. Rafael ARF. Power and caring: A dialectic in nursing. *Adv Nurs Sci* 1996;19:3-17.
31. Foucault M (서우석 역). 주체와 권력. Dreyfus HL, Rabinow P(편).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울: 나남. 1982/1989.
32. Dzurec LC. Poststructuralist musings on the mind/body question in health care. *Adv Nurs Sci* 2003;26: 63-76.
33. McCormick J, Roussy J. A feminist poststructuralist orientation to nursing praxis. In Thorne S, Hayes VE (Eds). *Nursing Praxis: Knowledge and Ac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1997.
34. Dickson GL. A feminist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the knowledge of menopause. *Adv Nurs Sci* 1990;12:15-31.
35. Henderson A. Power and knowledge in nursing practice: The contribution of Foucault. *J Adv Nurs* 1994;20:935-939.
36. Heartfield M. Nursing documentation and nursing

- practice: A discourse analysis. *J Adv Nurs* 1996;24: 98-103.
37. Powers P. *The methodology of discourse analysis*. Sudbury, Mass: Jones and Barlett Inc. and National League for Nursing. 2001.
38. Georges JM. An Emerging discourse: Toward epistemic diversity in nursing. *Adv Nurs Sci* 2003;26:44-52.
39. 김남선. 포스트구조주의적 분석을 이용한 간호와 보건의료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한 시도. *대한간호학회지* 1997;27:531-540.
40. 권봉숙, 박형숙. 한국 간호지식체의 생산과정과 담론분석적 전망. *대한간호학회지* 1997;27:61-70.
41. 공병혜. 포스트모더니즘과 간호의 이슈. *대한간호학회지* 2004;34:389-399.
42. 이은주, 홍경자. 간호학적 지식/권력과 실무: 아동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대한아동간호학회지* 2001; 7:85-95.
43. 이은주. 사춘기에 대한 담론분석. *대한아동간호학회지*. 출판중.
44. Kermoe S, Brown C. The postmodern hoax and its effects on nursing. *Intern J Nurs Studies* 1996;33: 375-384. recited in Cheek J. *Postmodern and poststructural approached to nursing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0.
45. Allen DG. Using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methodologie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health, In Chinn PL (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Implementation*, Rockville, Maryland: Aspen Publishers. 1986.